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8호 [주체 제25271호] 주체105(2016)년 5월 7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대히 개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대회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전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당의 명도멸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료를 높이 모시어 년대와 세기들이여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가는 강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오늘 우리 당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사상과 명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불패의 통일체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의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 떨치고있다.

시대의 방항타를 역세게 틀어쥐고 반미투쟁의 전초선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억척불변의 선군정치는 정의와 평화,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중중첩

첩 겹쌓이는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린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천만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려는 전체 당원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것이다.

대회는 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멸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와 경험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새로운 투쟁과 전진, 최후승리의 휘황한 실계도를 펼쳐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상징인 조선로동당기가 형성되어있었으며 대회장 곳곳에 당기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라는 구호가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당마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일심단결》, 《백전백승》이라는 글발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각 도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결의전대표자들과 발언전대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도당대표회들에서 추천된 당, 무력,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제일본조선인총합단과 제중조선인총합회총합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전체적인 예지와 비범한 명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우뢰와 같은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표자들과

은 나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흥정과 열화같은 경도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제의에 따라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 일군들과 근로자들,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회를 선언하시자 애국가가 추악되었다.

김영남동지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대회는 집행부를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대표자들과 온 나라의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범위를 담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를 대회집행부에 높이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과 절대적인 흥정을 담아 대회참가

자들이 터쳐올린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대회장을 전경하였다.

대회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김정은 동지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홍해동지, 김기남동지, 최래복동지, 박영식동지, 리명수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철동지, 김원홍동지, 안장수동지, 최상근동지, 리영래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최림동지, 리수용동지, 김덕춘동지, 김용진동지, 리우영동지, 리철만동지, 리일환동지, 리만건동지, 안장수동지, 최상근동지, 리영래동지, 김정일동지, 김중협동지, 김만성동지, 홍인범동지, 박도춘동지, 리병철동지, 주규청동지, 조준필동지

주석단에는 지난 기간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표들이 자리잡았다.

또한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윤정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일민 반세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부영옥 재일본조선인총합단 단장, 차상보 제중조선인총합회총합단 단장이 초대되었다.

4 번 으 로 계 속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정은



당 제 7 차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는 조선로동당 제 1 비서 김정은 동지

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 줄 배심과 신심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전인민적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총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리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이 기간 우리 당은 자기 대령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면발을 절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김일성동지, 최현동지, 오백봉동지, 오진우동지, 최광동지, 림춘추동지, 박성철동지, 전문섭동지, 리윤실동지 등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허담동지, 연형복동지, 김중린동지, 허정숙동지, 김국태동지, 김용순동지, 김양건동지, 전병호동지, 박송봉동지, 리찬선동지, 리제강동지, 리용철동지와 강방욱동지, 리종욱동지, 김락희동지, 안달수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충직한 혁명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조명목동지, 김광진동지, 김두남동지, 전세선동지, 윤치호동지, 리동춘동지, 김하규동지, 리진수동지, 심장환동지를 비롯하여 혁명투사의 강화발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귀중한 선군혁명전우들도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또한 리승기선생, 임복제선생, 천세봉선생, 백인준선생, 유원준동지, 리상혁동지, 박영순동지를 비롯하여 과학, 문화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 바친 천사, 교수, 박사, 작가, 인민배우, 인민체육인들 그리고 한덕수동지, 최덕신선생, 리인모동지, 림현식동지, 김광태동지를 비롯한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하였으며

그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가 있어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조국의 오늘의 영광이 있는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유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 잊지 못할 우리 당의 혁명전우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것을 제의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는 역사적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존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년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정세는 매우 엄중하고 복잡하였습니다.

세계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였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 당대회에 선물하였으며 전국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수많은 중요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총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어왔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호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면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면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제 7 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의 긍지높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차게 벌였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람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철불굴의 기개와 당대한 대량,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앞에 특별히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끊임없는 혁명적대진군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 온 당원동지들의 고귀한 맘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첫 수호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총명한 그 기세로 총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70일전투에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판정으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명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70일전투기간 전력, 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서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 생산장성을 이룩하고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우리 식의 현대화, 국산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적양양의 거대한 열풍을 일으켜 상반기년도,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특출한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였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 당대회에 선물하였으며 전국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수많은 중요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총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어왔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호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면에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면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제 7 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의 긍지높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차게 벌였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람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철불굴의 기개와 당대한 대량,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앞에 특별히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끊임없는 혁명적대진군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 온 당원동지들의 고귀한 맘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의 한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고 닳고 닳을 억세게 틀어잡고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애국의 더운 피와 맘으로 세겨왔으며 당 제 7 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표자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뜻깊은 우리 당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반제민주주의선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그리고 남조선인민들과 총변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혁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 당 제 7 차대회에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를 보내 준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각계인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당대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면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요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는 각각 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대표자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률 보면 당, 정치군대표 1,545명, 군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군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 여성은 315명입니다.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속에서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하시였다



1 일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느 조선로동당 제1비서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1일회의에서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시작하시였다.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2일회의에서 계속된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과 나이제리아련방 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바샤르 알 아사디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6일 평양 팔케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시였다.

꽃 바구니의 당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릭송사영판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오순마킨데 에드워드 둘라보 주조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임시대리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시였다.

꽃바구니의 당기에는 《조선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조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외교단 단장인 팔레스티나 국가 특명전권대사, 무관단 단장인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 경제 및 무역참사단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해당 부문 일군

들에게 각각 전달하시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조 무바공화국, 이란이슬람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캄보디아왕국, 말레이시아, 브라질련방공화국, 인디아공화국의 특명전권대사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임시대리대사와 주조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사무소,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에서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필리핀사회의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를, 수리

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벨기에왕국, 벨기에왕국, 벨기에왕국 특명전권대사들이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당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등의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대히 개막

1번에서 계속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반제민족민주건설 중앙위원회와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에서 축하문과 축기를 보내어온데 대하여서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에서 당 제7차대회앞으로 축하문과 축기를 보내어온데 대하여 소개되었다.

대회에서는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들, 각계 인사들 그리고 주조외교단,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참사단,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부들이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와 선물, 태담, 명예칭호, 상장들을 드린데 대하여 소개되었다.

또한 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여러 나라의 정당들과 당수들, 친선 및 연대성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각계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를 보내어온데 대하여 소개되었다. 대회는 대회서기부를 선거하였다. 대회서기부는 다음과 같다.

김리택동지, 민병훈동지, 후광순동지, 리정현동지, 태형철동지, 박춘남동지, 정인국동지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재중조선인총연합회에서 드리는

축하문을 부영속 제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 차상보 재중조선인총연합회축하단 단장이 낭독하고 축기들을 정중히

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정치보도반

증정하였다.

대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는데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로혁적위훈을 세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었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대회의정을 승인하였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감사위원회 사업총화
3.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주머할데 대하여
5.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대회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대회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대회는 계속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대히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별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동지

나는 1980년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후 36년만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되는것과 관련하여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제국주의의 온갖 형태의 간섭과 지배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주체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김일성대원수께서 태방후부의 전지하여오시고 김정일대원수께서 이어오신 투쟁로선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기간 조선인민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투쟁을 승리적으로 명도하여 조선과 조선인민을 당당한 지위에 올려세웠습니다.

당신께서 조선을 명도하신 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은 더욱 통일단결되고 강력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필승불패의 혁명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탄압시련을 비롯한 계속되는 도전을 이겨내고 선군과 원미아전군으로 위력한 혁명의 보루로 전변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며 조선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귀국의 투쟁에 전적인 연대성을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는 지배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자주적인민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데서 실패한자들의 마지막수단으로서 우리는 이 부당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맞서 싸우는 귀국지도부와 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면서 귀 당 제7차대회가 조선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원수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랍사회부총당 지역비서
바샤르 알 아사드

2016년 5월 6일

디마스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별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은각하

각하 나는 2016년 5월 6일에 개최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나 자신과 우간다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뜨거운 인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귀 당이 당건설과 과학기술발전,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제시한 정책들을 높이 평가하며 귀국인민이 중요한 사회경제적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바공산당과 인민은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전체 우바인민의 단결과 민족적독립,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업방법과 작풍을 완성하여 경제방식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두 당사이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분부하시여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는바입니다.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위원장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

2016년 5월 5일

캄팔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우바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을 보내어왔다

별 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앞

우바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귀 당 지도부와 전체 당원들에게 형제적이며 뜨거운 인사를 보내면서 당신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 당이 당건설과 과학기술발전,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제시한 정책들을 높이 평가하며 귀국인민이 중요한 사회경제적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바공산당과 인민은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전체 우바인민의 단결과 민족적독립,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업방법과 작풍을 완성하여 경제방식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두 당사이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분부하시여나아가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는바입니다.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총비서
자스틴 카술레 루뎀바

2016년 5월 4일

아바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 당령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별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베히꼬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당신의 현명한 명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당 제7차대회를 기다린 성과와 빛나는 위훈으로 성대히 경축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명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면서 이 기회에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가장衷心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께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베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토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6년 4월 28일

베히꼬

별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은각하께

각하

저는 2016년 5월 6일에 개최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콩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베니 싸우 누제쓰동지와 저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당대회는 명백히 귀 당 조선로동당의 진군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각하의 탁월한 명도밑에 전체 조선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서 귀 당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총화하게 될것이며 부흥하고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기초로 될것입니다.

콩고로동당은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서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강화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제1비서동지

아울러 저는 이번 당대회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동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숭고한 전무적경의를 표합니다.

콩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에르 은 플로

2016년 4월 30일

브라자빌

별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은각하께

각하

저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저자신과 그리고 우간다전국항쟁운동을 대표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가장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집권당으로서 조선인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헌신적인 투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당 제7차대회가 당을 강화하고 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좋게 발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신타 귀 당의 번영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간다전국항쟁운동 총비서

자스틴 카술레 루뎀바

2016년 5월 2일

캄팔라

